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한 참 & 온전한 복음! (1)

- 읽을 말씀 롬 1:1-6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오직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왜 칭의 교리에 대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을 제시함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로마서에는 칭의 교리에 대해 모순처럼 보이는 두 종류의 말씀이 나온다.

1)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구절들!

로마서 3-5장에 보면 루터가 칭의 교리의 근거로 삼았던 구절들 즉, '율법의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①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들! : 롬 3:25, 27-28, 30, 4:5, 9, 11-14, 16, 5:1-2

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② 은혜를 강조하는 구절들! : 롬 4:16, 5:2, 15, 17, 20-21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 순종의 필요성과 버림받음을 경고하는 구절들!

로마서 6-8장, 정확히는 6장 1절 이하 8장 30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그러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연이어 나옵니다.

① 순종을 강조하는 구절들! : 롬 6:4, 6-7, 10-13, 15, 17-19, 7:4, 8:1-4, 12

롬 6:1-2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② 버림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구절들! : 롬 6:20-23, 8:5-6, 13

롬 6:15-16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

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2) 바울은 각각 다른 것을 상대로 복음을 변호하고 있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같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으나, 3-5장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복음을 변호하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3-5장에서는 칭의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순종의 필요성과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6-8장에서는 같은 복음을 설명하되 무율법주의를 상대로 복음을 변호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순종의 필요성과 계속 죄를 지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들이 거듭 나오는 것입니다.

(3) 두 가지를 합해야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이 된다!

3-5장과 6-8장은 같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각각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상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내용과 강조점이 다를 뿐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자택일이 아닌 둘 다 취해야만 바울이 말한 참 복음과 온전한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루터는, 율법주의를 상대로 복음을 설명한 것만 가지고 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교리화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주석과 설교를 통해 그것을 도리어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 구원파적인 칭의론이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어려서부터 3-5장뿐 아니라 6-8장에 근거해서 복음을 통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루터와 동일하게 믿고 강조할 뿐 아니라, 믿음은 순종을 낳으므로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불순종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바울이 로마서에 쓴 그대로 믿고 외쳐왔습니다. 제가 전한 것은 다른 성경들은 물론 로마서에서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참 진리이며, 문맥을 보아도 절대 뒤집힐 수 없는 온전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 참 복음이고 온전한 복음입니다.

3-5장에서 바울이 믿음과 은혜를 강조한 이유는 그 당시는 율법주의가 큰 위협이었고 그런 설명과 강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율법주의가 더 이상 교회에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율법주의가 교회와 영혼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구원파적인 희석된 복음이 교회 안에 누룩처럼 널리 퍼져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3-5장에서 강조한 진리를 인정할 뿐 아니라 6-8장에 나오는 순종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강력하게 외쳐왔습니다. 현대 교회 교인들에게 그 가르침이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은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을 함께 강조해야, 그것이 올바른 복음전파입니다!

(4) 로이드 존스의 말은 복음에 대한 온전한 시금석이 아니다!

6장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1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15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근거로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강해 제3권』에서 바울이 칭의의 복음을 설명할 때 이런 공격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도 같은 오해와 반론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복음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매우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자신이 알고 있는 루터식 구원파적인 복음을 참 복음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심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이런 의문들이 생기지 않아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답을 얻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이 난제에 대한 답은 문맥에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로마서 8장 후반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절에 나오는 반문은 단지 3-5장의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부인하고 믿음과 은혜를 강조한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설명이 끝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5절도 3-5장에서 설명한 것에 6장 2-14절에서 설명한 순종의 필요성까지를 근거로 한 질문입니다. 그것들은 복음 전체에 대한 반론이 아닙니다. 즉, 바울이 무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설명한 것을 모두 들은 후에 나올 수 있는 반론이 아닙니다. 때문에 바울처럼 율법주의를 상대로 복음을 변호할 때와, 전통적인 교회도 순종의 필요성은 인정하듯 순종의 필요성까지만 인정한 것에서 나오는 질문일

뿐입니다. 복음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전할 때는 그런 반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런 반론이 나와야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3-5장에 기초한 구원파적인 칭의의 교리가 개신교 안에서 오래도록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되어 왔습니다. 6-8장에 나오는 순종의 필요성과 버림받을 위험에 대한 진리는 왜곡되거나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순종의 필요성은 반만 인정했고(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으로!),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은 전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반문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며, 그것을 근거로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반면에, 그들과 달리 저는 3-5장뿐 아니라 6-8장까지 소화하고 그 둘을 조화시켜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로마서 8장에 그런 반문이 나오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이유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먼 것이고 심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 나눔과 적용

올바른 복음은 믿음과 은혜뿐 아니라 순종과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을 함께 강조합니다. 영혼과 교회를 위협하는 무율법주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구원파적인 희석된 복음에 미혹된 이웃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맺게 된 열매들을 나눠봅시다.